

암 조기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다

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이 있다!
 오늘도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민들을 암의 위험으로부터
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검진을 통한 암의 조기발견에
 최선을 다하고 있다.

간암 조기발견 사례

- 서울에 거주하는 김○○(여, 53)씨는 서울지부에서 간암 의심소견을 받은 후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간암 판정을 받고 현재 치료 중에 있다.
- 경남 고성에 거주하는 천○○(남, 63)씨는 경남지부에서 간암 의심소견을 받고, 동아대학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고 현재 치료 중에 있다.

[한국건강관리협회의 2005년 주요 암 발견현황]

1월 확진자 열거	암의심소견자 : 279명			암확진자 : 43명		
	4	7	8	6	14	4
	폐 암	간 암	위 암	유방암	자궁암	대장암

간암

◎ 간암의 원인

모든 악성 종양과 마찬가지로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알려져 있다. 환경적 요인에는 바이러스성 간염, 혈색소성 및 알코올성 간질환 등과 같은 만성 간질환, 곰팡이에서 유래한 아플라톡신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, 영양 상태 및 호르몬 등이 가능한 원인으로 제시된다. 특

히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규명된 이래 바이러스성 간염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.

유전적 요인으로는 근래에 괄목할 만하게 발전되고 있는 분자 생물학적 연구에 힘입어 암 유전자 및 억제 암 유전자 등의 유전적 요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그 기전이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.

◎ 간암의 증상

간암에서만 특별히 나타나는 증상은 없으나 일반적인 증상을 살펴보면 간경변의 증세와 같다. 대개 초기증상으로는 몸이 노곤하고 소화가 잘되지 않으며, 헛배가 부르고 식욕이 없어지며 우 상복부에 불쾌감을 느끼는 등 막연한 증상이 많다.

가끔 우측 늑골의 아래로 단단한 돌덩이 같은 것이 만져지거나 통증과 때로는 간혈적으로 바늘에 찔리는 듯한 아픔이 간 부위에서 느껴지며 주로 밤중에 심해진다.

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, 전신쇠약, 상복부와 견갑부 동통 및 체중 감소이다. 그러나 간암의 증상은 암이 진행되기 전까지 증상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데 증상의 기간은 아주 짧아서 75% 이상에서 병력 기간은 6주 미만이다. 약 80%의 예에서 체중 감소와 허약이 나타나며, 복통은 반수에서 나타난다.

통증은 둔하고 지속적이지만 괴사된 결절의 파열이나 혈관의 침식으로 복강 내 출혈이 있을 때는 급작스런 통증을 유발하는데 약 14%의 예에서는 첫 증상으로 발현된다.

간은 대개의 경우 종대되어 있으나 동통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. 또한 황달, 복수, 비장비대를 포함한 많은 증후가 나타나나 종양보다는 내재되어 있는 만성 간 질환에 의한 경우가 많다.

◎ 간암의 초기 진단

간암은 증상을 느낄 정도면 치명적이나 조기 발견만 되면 완치가 가능하다.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최근 혈액검사, 초음파 촬영술이 발달해서 암 조직의 지름이 0.5cm만 되어도 찾아내 조치할 수 있다.

◎ 간암의 치료법

간암의 치료법을 보면 간 절제술, 간이식, 간 동맥 화학 색전술, 경피적 무수알코올 주입 요법 등이 있다. 이 중 간 동맥 화학 색전술이나 경피적 무수 알코올 주입요법은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되는 보조적 치료법이며, 가장 유일한 근본적 치료는 수술적인 절제술이라고 1986년 미국 보건성 암 연구소

에서 발표하였다.

간암의 수술적인 절제술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암종이 단발성이거나 국소적이어야 하고, 임파절이나 혈관 혹은 담관의 침윤이 없어야 하고, 원격 전이의 증거가 없어야 한다.

비록 종양이 해부학적으로 절제 범위 내에 있더라도 간 경변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 무리한 절제는 수술 후 간 부전을 야기시킬 수 있다.

화학요법으로는 100명 가운데 한 명이 완치된다는 통계도 있다. 그러나 간암 치료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정도나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암 부위를 수술한 뒤 화학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.

◎ 간암의 예방법

간암의 예방법은 간암 발생의 여러 요인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것이다.

이러한 방법으로는 첫째, B형 간염에 대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며,

둘째, 무분별한 성 관계의 금지,

셋째, 수혈이나 마약 남용을 방지하여 C형 간염을 예방하고,

넷째, 가족 중 간염 환자가 있을 시 가족 사이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고,

다섯째, 술자리에서 잔을 돌린다거나 공동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등의 음주 문화의 개선,

마지막으로 변질된 음식으로부터 아플라톡신 등을 섭취하지 않는 것 등을 들 수 있다.

그리고 B형 간염 항원의 보균자는 간암의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은 간암의 고 위험군에 있기 때문에 매년 2~4회 정도 초음파 검사와 혈중 알파페토 단백질 등을 측정하여 간암의 발생 여부에 대한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.

식생활 예방법으로는 항염증에 적용하는 노루귀를 섭취하면 좋고 식사는 울무를 주식으로 한 현미, 검정콩 식사가 좋다. 살구씨에 함유된 아미구다린을 비타민 B17이라 하는데 이것이 항암 작용이 있으며 엿기름이나 컴프리에 들어 있는 알란토인 스쿠알렌 성분도 항암 효과가 있다. ㉞